

SOCIETY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5:26 달출 00:03
예침 19:32 달림 10:39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Gwangju, Mokpo, Yeosu, Suncheon, Gyeongju, and Jeonnam.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Gwangju, Mokpo, and Yeosu,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Gwangju, Mokpo, and Yeosu,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광주 '흥기소지피' 첫 검거
시행 이후 검거되는 첫 사례. 18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공공장소 흥기소지 혐의로 대학생 A씨(19)가 현행범으로 체포.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한 오월 영령에 감사”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 후 민주묘지 찾는 추모객들 발길 이어져
자식·부모 생각에 눈물... 헌법 전문 수록 축구

“그 때는 고문 당한 남편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미안하고 자랑스롭습니다.” 18일 오전 임시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나자 참석자들로 가득 찼던 좌석은 금세 비워졌다.

(86)도 이중 한 명이다. 장씨는 기념식이 끝나자 아들과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남편이 묻혀 있는 곳을 찾았다. 1980년 5월 당시 정치인으로 활동한 정 열사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같은 해 7월 경남사부 보안부로 연행돼 5·18을 선동한 혐의로 고문을 받았다.

에만 집중하던 당시 남편의 모습이 너무 원망스러웠다며 “남편이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지금 남편분을 체포해 가지면 큰 일을 하는 것이고 훗날 시대가 바뀌면 다 이해할 것이다’는 행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함께 김 열사를 찾은 아내의 지인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5·18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김 열사는 신군부에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 21일에 시위 중 옆구리에 구타를 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후유증을 겪다 지난 2001년 숨을 거뒀다.

수목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채씨는 “말로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다’고 하는데 폭도니 간첩이니 왜곡과 폄훼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80년 5월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명예와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상원 열사, 5·18 진실 외친 광주항쟁 상징”

광산구 ‘광산길 체움’ 프로그램... 독재길 등 도보 순례 기념식 후 추모등 만들기·주먹밥 나누기 등 행사 진행

“윤상원 열사는 시민을 대표해 광주 진실을 세계에 알린 5·18의 대변인입니다. 그의 선택과 헌신이 지금의 광주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7일 광주 광산구 임곡동 윤상원 기념관.

교부터 윤상원 열사 생가까지 걷는 도보 순례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6~8명씩 7개조로 나누어 현장 해설사들로부터 윤 열사의 행적과 5·18의 흔적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언론 통제와 군사 독재의 시기였다”면서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지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휴대폰으로 포스터를 찍거나 신문 기사에 눈을 떼지 못하며 안타까운 감정을 내비쳤다.



추모등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오월길을 걷는 모습.

행사는 국민의례, 묵념, 송경동 시인의 시 ‘아! 광주여 우리나라 십자가여’ 낭송, 청년 발언,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핸드벨 연주에 맞춰 시민들의 합창으로 이어졌다.

어린 손들이 만든 추모등에는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짧지만 굵고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눈길을 끌었다.

광주서 ‘전두환 공원’ 명칭 변경 서명운동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본부, 금남로·민주묘지서 진행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전야제가 열린 금남로와 기념식이 열린 국립 5·18민주묘지 앞에서 ‘전두환 공원’으로 불리는 경남 합천군 ‘일해(日海)공원’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이들은 기념식을 찾은 추모객들에게 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도 본부는 서명 활동을 진행했고, 서명할 참여객의 수는 2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립 5·18민주묘지 앞에서 ‘전두환 공원’으로 불리는 경남 합천군 ‘일해(日海)공원’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본부는 일해공원의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게시했다.

이후 10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해당 청원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회는 심도 있는 입법·정책적 고려를 이유로 심사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1년
서울시 행정처분 공고 게시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산개발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시는 공고로 현산에 대해 오는 6월9일부터 2026년 2월8일까지 8개월 간 2026년 2월9일부터 6월8일까지 4개월 간 등 총 1년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 등이다. 앞서 현산은 지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면,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